

혜승 스님은 1956년 해인사에서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망월사에서 3인거를 성만, 은해사 각성 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회암사, 고운사 주지 역임. 현재는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이며, 연화재단 이사장, 고운사 회주이다.



혜승 스님 (고운사 회주)

선지식을 찾아서

혜승

마음만 결정하면 모든 것 다 이룰수 있어
복 짓지 않고 받을 생각만 하니 괴롭다는 것

극락도 지옥도 자신의 '선택'

금 빛 햇살이 내려앉은 소나무 숲은 두터운 적으로 가득하다. 금빛 햇살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환절간 삼중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삼중석탑 아래는 흰색과 분홍의 물봉숭아와 붉은 사투비아 꽃이 활짝 피어있어 고요한 절 안에 야단스럽게 활개 생기를 주고 있다. 말없는 말로 건네는 꽃들의 인사가 반갑기만 하다.

한 벽면을 대장경으로 가득 채운 혜승 스님의 방에 들어서자 수행자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스님은 오늘 집을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고 묻는다. 이런 느닷없는 질문을 받아 본 일이 없기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스님은 불교는 시작도 기쁨, 과정도 기쁨, 결과도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원력을 세우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기쁨입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시키려고 힘든 일 마다하고 하잖아요. 그처럼 성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을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부처님이 너도 부처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부처님 말씀만 확실히 믿어도 원력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참말로 기쁨입니다. 깨달음을 떨려서 찾지 마세요. 예를 때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반드시 독송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독송해서는 안됩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부처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깨달으려고 하면 누구나 깨칠 수 있고, 이룰려고 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데 강인한 원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결정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마음을 내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성불하겠다는 소원은 불자들의 본원이기에 일생을 통해서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3분정도라도 열불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되

풀이 되는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를 아침에 생각해 본다면 헛된 하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베풀어야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다.

“기술이든 지식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회향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사람들은 나눌 수 없다고 하면서 나누려 하지 않더군요. 좋은 말을 건네는 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판기 커피 한잔 사주는 것도 나누는 것 입니다. 서로가 나누려고 한다면 세상은 화기에애해 질 것이며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극락세계라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나누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팔만사천경을 통하여 극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 보살의 마음을 비롯하여 아라한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지옥 같은 마음 등 참으로 많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옥을 선택할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극락을 선택할 것이다.

혜승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아 일할 때 사찰의 재정(財政)을 대중들에게 낱알이 공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이 내는 보시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니 사람들은 혜승 스님을 믿고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자는 물질에 집착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스님의 확고한 철학이다. 혜승 스님은 주지가 10번이 바뀌어도 진행하던 사업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주지가 바뀌면 전에 소임을 맡았던 사람이 애써 해놓은 것을 뜯고 새로 하는 병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면 그때 불사한 사람의 성의는 무엇이 될 것이며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는 말씀을 하였다. 연화재단 이사장인 스님은 생활보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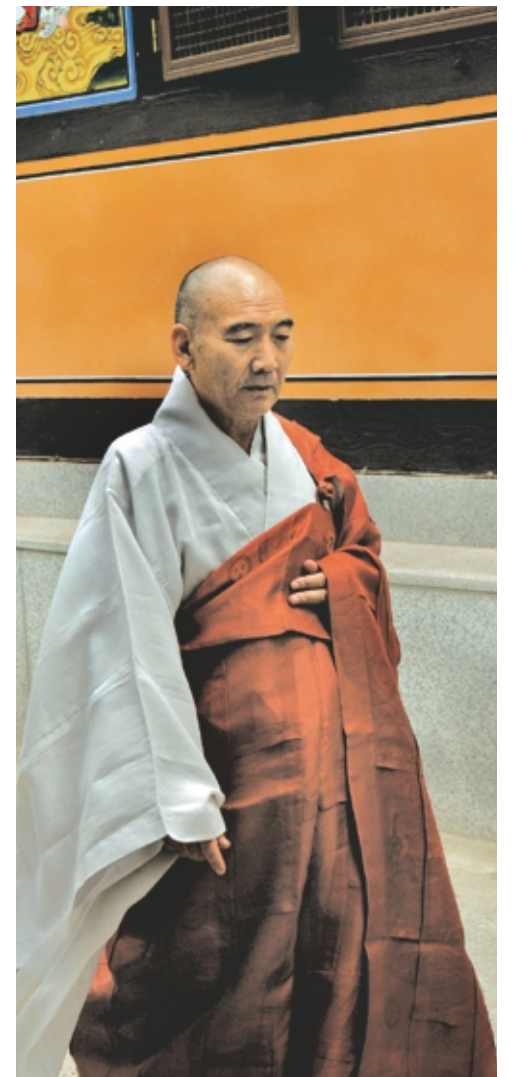
자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손도 잡아주고 하다보니 정이 들어서 개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우리 절에 오시는 노인네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싶어 연화사를 지었어요.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증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노인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스님이 생각할 때는 사찰에서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법문을 청하는 사람에게 꼭 당부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를 내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니 날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욕심을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빼앗길 염려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익 되게 해주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 되게 해 주려고 하면 크게만 생각하는 데 혜승 스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시든 나무가 있으면 물을 주고, 어딜 갈 때 앞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작은 일부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었다. 인연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뜻이다. 우리들이 괴로운 것은 복을 지어놓고서 복 받을 생각을 해야 행복한다. 복은 짓지 않고 받을 생각만 하니 괴롭다는 것이다.

복 짓는 일이 높은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혜승 스님은 말씀하지만 작은 선행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실천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혜승 스님의 가르침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즐겁고 산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다. 기쁨이 화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본다. 글·사진=윤문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2006 대한민국 여성유망도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마노베이션 기프트&패션드 선정(스포츠서울)
매력한 디자인 및 상품성

www.magtorin.com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러다임 자기장을 첨가하고 음이온이 생성되는 포르마린 실리콘밴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집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루고 혹은 미니셀 색인 가능
단, 상품은 입고 후 확인하시고 바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민경)